

이사장 이임사

친애하는 조합원 대표님!

환경산업에 첫발을 딛은게 엇그제 같은데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으나 개인적으로나 폐기물 처리업계로서는 순한 시련과 역경, 기쁨과 슬픔들이 교차하는 세월이었습니다.

환경산업,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장치산업인 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해오면서 선배는 없고 후배들만 있는 새 길을 열어가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앞서사람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될 것임을 알기에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발한발을 내딛어온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후배들에게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이끌어온 환경산업의 운영방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고, 또 그보다 더 발전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업계의 한 모퉁이에서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2년에 조합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비로소 업계의 구석구석과 업체들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것은 그동안의 저의 불안과 걱정은 한갓 기우에 불과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민간소각 산업은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들과 종사자들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해박한 지식과 주장은 관련업계나 정부보다 10년 이상을 앞서 내다보는 합리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업계 원로인 저를 지난 3년간 불만 없이 믿고 따라주고 지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업계의 향후 100년을 가늠하는 당부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끝도 없는 물량난과 기형적인 규제와 혐오시설이란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루도 소각장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폐기물의 처리와 에너지 공급의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기반시설이면서 대체에너지 시설로서 급부상하는 소각 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둘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꿈을 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저유가시대와 맞물린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예외일수 없을 것입니다. 예견되는 앞날의 난관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속한 해결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완벽한 제방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불과 십수년전에 절대적 호황을 누리던 산업들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철을 우리가 밟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합을 업계의 중심축으로 삼아 뭉쳐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SRF 고행연료, 소각매립 부담금 등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된 업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위협사안들을 그나마 조기에 제어하고 축소한 것은 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표님들의 결집과 소리 높여 외친 목소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책과 제도들이 도처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연이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암초들을 신속히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는 조타수 역할과 등대역할을 우리들의 결집체인 공제 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는 것을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을 통해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합이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방관하거나 무임승차하는 동종업체들에게 조속히 같은 배를 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대표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년간의 공제조합 이사장직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역대 이사장님들의 치적에 누가되지 않고 그분들의 치적에 미력한 제 힘을 보태 업계의 철용성을 조금 더 높이 쌓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3년간의 이사장직 수행에 다소 아쉬움이 보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저의 외길 37년이 결코 헛되어 보이지 않게 하고자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새롭게 선출되신 박무웅 이사장님을 도와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업계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퇴임사에 갈음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제 6대 이사장 김 영 증